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4)

지난 3 개월은 참으로 치열한 영적전쟁, 대테러 종교건물 검사 등 매우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운데 그 동안의 중요한 사역내역을 나누며 기도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센터

러시아에서 교회건물이 종교성에 등록이 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교회가 종교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망교회 이름으로 종교 비자를 받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건물에서 3 개의 다른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테러 안전을 위한 종교건물 점검이 몇 개월의 준비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방당국과 안전국 등 4 개 기관에서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철제 비상계단을 비롯하여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13 곳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적 중의 하나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과 2 층에 비상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2 개의 비상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개 비상구를 제외하고 당장 수리해야 할 소방시설과 관련된 재정은 대략 6 천달러가 필요합니다. 선교센터 건물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하나님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 검사가 2 년전부터 수리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큰 벌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과 전도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일 체육관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 헌금을 통해 체육관 전 등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교회사역

코로나 바이러스사태가운데 7 월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전압안정기 3 개, 4 개의 에어컨을 구입 설치했고, 4 개방의 마루공사가 있었고, 본당의 스피커, 디지털피아노 등을 구입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과정 성경공부인 "생명의 삶" 2 기 과정에 12 명이 수료했고, 청년 블라지미르가 세례를 받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6 개월 만에 성경통독을 하는 등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2 년전에 로스토프 지역에서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할 때 작정기도후 첫째 주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가 펠릭스형제인데,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한후 성실하게 훈련받고 이제는 리더로 잘 성장해서 유학생들을 인도해서 청년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중, 최근에 로자와 후아니따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우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글학교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면서 청년부에 참석도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대학에서 공부하던 세르게이형제가 소망교회 전도사와 교회 관리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실한 세르게이형제가 귀한 교회지도자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그룹 가정 사역을 위해 교회의 소그룹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대학(신학교), 한글학교, 목회자 기도회.

가을학기가 개강하여 성경대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약간의 수업료도 받으며 학생 선발을 해서 그런지 헌신된 학생들이 열심을 갖고 신학공부와 영성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학기에 처음 시작한 한글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중단되었다가 가을학기에 젊은이 중심으로 기초부터 다시 모두들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로 연결되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길 기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함께 토론하며 유익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섬기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현지 목회자들의 매주 귀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기도모임



한글학교, 성경대학(신학교)



비자, 후원교회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는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3월 말부터 대부분의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7월초에 끝났던 저의 비자가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올해 12월말까지로 자동연장이 되지만, 비자가 만료되는 12월말까지는 출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코로나사태가 종료되어야 비자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비자발급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선교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주님께서 예비된 교회를 통해 선교비가 채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후원하던 교회의 후원액수가 줄어들거나 후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사역비가 필요한데, 현재 부족한 상황이라 예비된 후원교회와 연결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선교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장석천 장경희(누리, 하리) 선교사 드립니다.

2020년 9월 28일

기도제목

1. 대테러안전을 위한 건물 점검 이후 선교센터 수리와 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급하게 필요한 재정(6천달러)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선교센터가 이 지역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2. 한글학교사역을 통해 젊은이들이 교회에 연결되고, 현재 청년들을 통해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도록 역사하소서.
3. 비자문제와 후원교회 확보를 통해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